

JY 뛰니 빨라진 ‘미래시계’… 20조 투자, 반도체 전진기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본격적인 현장 경영에 나서면서 뉴삼성 전환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 제2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 부지를 놓고 6개월 넘게 고심한 끝에 미국 텍사스주 중부 소도시 테일러시를 최종 낙점하고 총 170억 달러(20조원) 투자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5월 투자계획을 공식화한 지 6개월,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 지 약 100일 만에 이뤄낸 성과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이번 투자를 통해 ‘민간 외교관’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한미 반도체 동맹’도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24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3일(현지시간)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신규 생산라인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겠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존 코닌 상원의원(첫 줄 왼쪽부터),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 제2공장 부지를 텍사스주 테일러시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삼성전자

지지부진 투자결정, JY 효과 톡톡 2030 시스템반도체 비전 재결음 신규 부지, 오스틴 공장과도 지적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생산체계 구축

미국 제2파운드리 투자 확정으로 삼성전자는 건설 중인 경기 평택 3라인과 함께 한국의 기흥·화성~평택과 미 텍사스를 잇는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생산체계를 공고히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테일러시 신규 라인은 2022년 완공되는 평택 3라인과 함께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핵심 생산기지 역할을 할 전망이다. 생산 능력 확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객사 확보, 국내 연구·개발(R&D)센터의 역할 증대, 우수한 전문인력 수요 창출로 이어지면서 결국 ‘고급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등 고용·연구 환경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인구 1만7000명이 거주하는 테일러시는 텍사스주 중부의 윌리엄스 카운티에 자리하고 있다. 약 500만㎡(150만 평)의 테일러시 신규 부지는 기존 삼성전자 오스틴 사업장과 불과 25km 떨어진 곳에 있어 기존 사업장 인근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용수와 전력 등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일러시 부지 주변으로는 미국 최대 PC 제조사인 델(Dell) 본사와 AMD·ARM·퀄컴 등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들의 연구소와 지사가 들어서 있다.

테일러시와 윌리엄스 카운티는 올해 9월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재산세 90% 이상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만장일치로 확정했고, 테일러 독립교육구도 2억 9200만 달러(약 3442억 원) 규모의 추가 세금감면을 약속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텍사스에 투자하는 이유는 텍사스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과 뛰어난 노동력 때문”이라며 “삼성전자의 신규 테일러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 중부 주민들과 가족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텍사스의 특출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0개 이상의 첨단기술직 일자리, 수천 개의 간접일자리, 최소 6500개의 건설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美 백악관 “투자 환영”

삼성전자의 이번 공장 설립 결정은 한미 관계를 돈독히하는 외교적인 역할까지

삼성전자가 미국 내 제2파운드리 부지를 텍사스주 테일러시로 최종 확정 가운데 미국 백악관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4일 ‘삼성의 텍사스 신 반도체 공장 발표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오늘 삼성이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두 사람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반도체 및 공급망 복원 CEO 서밋’을 주재했던 인물이다. 지난 14일 미국 출장을 떠난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최종 입지 선정에 앞서 미국 워싱턴D.C에서 설리번 보좌관과 디스 위원장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삼성의 역할에 대해 의견도 전했다고 한다.

재산세 90% 등 세 감면혜택 받아 美 백악관·텍사스주 모두 “환영” 내년 착공… 2024년 가동 목표

이들은 “이 새로운 반도체 공장은 우리의 공급망을 보호하고, 제조기반을 활성화할 것이며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오늘 발표는 이재용 부회장과의 협력과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에 대한 상호 보완적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포함한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의회, 동맹국 및 파트너, 민간 부문과 24시간 반도체 제조 능력을 추가로 창출하고 다시는 부족 사태에 직면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테일러시에 세워지는 신규 라인 은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4년 하반기 목표로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 신규 라인에는 첨단 파운드리 공정이 적용될 예정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고성능컴퓨팅(HPC),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가 생

산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AI, 5G, 메타버스 관련 반도체 분야를 선도하는 전 세계의 시스템 반도체 고객에게 첨단 미세 공정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

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남 부회장은 “올해는 삼성전자 반도체가 미국에 진출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테일러시 신규 반도체 라인 투자 확정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신규 라인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인재양성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Global Battery Leader

LG 에너지솔루션